

배춧값 하향 안정세...김장 담그기 조금만 늦추세요

전국 물량 25% 해남 배추 본격 출하...소매가 일주일새 11.6% 내리 정부·대형마트 김장철 물가 안정 지원 지속...장바구니 부담 완화될 듯

올 겨울 김장 담그는 시기를 조금만 늦추면 김치를 사먹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김장용 가을 배추 물량의 25%가량을 담당하는 해남군이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배추 출하에 들어간다. 평년 대비 높은 배추 값에 김장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배추 값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김장 시기를 늦추기만 해도 평년 수준 가격으로 김장을 담글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11월 농업관측정보 엮근채소'에 따르면 배추 도매가(10kg)는 지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상승에는 2만 4900원, 중순 2만 1470원으로 높은 가격을 기록했지만, 하순에는 1만 2040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하락했다.

다만, 배추값은 여전히 평년(1만 498원) 대비 15%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 여름부터 지난 10월 초까지 지속된 폭염에 배추가 녹아 전체 물량이 부족해졌고, 가을배추 생육 초기에도 작황 부진을 겪어 출하 시기도 늦춰졌기 때문이다. 가을배추와 겨울배추 생산량도 평년보다 5%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

KREI는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1만 2796ha로 전년(1만 3152ha)과 평년(1만 3450ha)에 견줘 각각 2.7%,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을배추 생산량도 평년 대비 5.1% 감소한 118만 t이 될 것으로 봤다.

겨울배추 생산량 역시 3.7% 줄어든 24만 t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달 하순 배추 값이 대폭 하락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배추 값이 상승세를 멈추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평년보다 10일에서 2주 가량 늦게 김장을 시작하면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이 더



배추 수급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배추(10kg·특품) 도매가는 지난 9일 기준 8693원으로 이달 초 대비 22.8% 하락했다.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산물시장 청과동에 배추가 쌓여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

육 완화될 것이라 전망이다.

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공식된 배추(10kg·특품) 도매값

은 가락시장 기준 이달 초 1만 1000원대에서 지난 9일 기준 8693원으로 일주일 새 22.8% 하락했다. 같은 기간 배추 소매 가격 역시 포기 당 4327원에

서 3823원으로 11.6% 내렸다.

이 밖에도 정부 및 대형마트 역시 배추의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 노력을 지속하면서, 김장 물가는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12월 4일까지 4주간 모든 김장 재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각종 지원을 통해 배추, 무, 소금, 새우젓 등 김장 주재료 14가지를 최대 40~50% 할인 판매하는 한편, 배추 농가 등에는 생육 부진 등을 극복하고 생산비 부담을 절감 및 배추 수급 정상화를 위해 비료를 30% 저렴하게 공급하기도 했다.

김장철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김장시기를 2주 가량 미루겠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평년 김장철이 11월 초부터 12월 초로 지역별로 시기가 각각 다르지만, 올해 KREI가 실시한 김장 조사에 따르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에 김장하겠다는 의사가 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배추값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부터 김장을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 농민들 천막농성 돌입...쌀값 정상화 대책 등 촉구

농어민 공익수당 현실화 요구

전남 농민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천막 농성에 들어간다. 쌀값이 추락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재배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만큼 현재 농어민 공익수당의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게 농민들 요구다.

10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11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

농민 생존과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게 농민

회 입장이다.

현재 산지 쌀값(80kg)은 지난 5일 기준 18만 2700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0만 1384원)에 견줘 9.2% 하락했다. 최근 5년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인 평년가격(19만 1022원)과 비교하면 4.4%(8322원)나 떨어졌다. 20kg짜리로는 4만 5675원 수준이다.

전남도도 1년 동안 벼 재배농가의 보상은 10~12월 수확기 산지 쌀값으로 결정되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높아야 보장되는 현실을 감안, 현 추세라면 전년 대비 10% 이상 하락해 소득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병충해 피해로

고통받는 농정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지원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데 따른 불만도 적지 않다.

농민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11월 전남 도청 앞에 쌀값 보장, 농어민 공익수당 120만원 지급 등을 내건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13일에는 지역별로 쌀값 폭락 근본문제 쌀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지역 농민대회도 개최한다.

한편, 전남도는 농협에 지원하는 벼 매입자금(1조 3000억원) 이자율 2%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농협은 전년도 가격 수준으로 벼를 매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농어촌공사 '청년농업인 중앙협의회 포럼'

전국 9개 도서 70여명 참석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7일 남원에서 농지은행 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 청년농업인 중앙협의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청년농의 농업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9개 도에서 70여명의 청년농업인이 참석했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초 청년농업인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역 청년농업인, 유관기관, 공사직원들로 구성된 94개 지역 협의체를 결성한다. 지역협의체 가운데 각 도의 대표들이 중앙협의체로서 이번 포럼에 참석하게 됐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확대와 발전방안'으로, 청년농업인들의 농지 이용 실

태와 영농 정착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농지은행사업 등을 통한 청년농업인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이 주로 이뤄졌는데,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세무와 법적 지식 지원을 위한 '농업 세무교육'을 특별 세션으로 구성했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사는 "이번 포럼은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된 안전들을 중심으로, 농지 매대사업, 선임대·후매도사업, 공공인대용 농지매입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농수산식품 유통·수출 등 29일까지 '강사 인력풀'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오는 29일까지 농수산식품 유통, 수급, 수출, 식품산업 등 분야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우수 강사 인력풀'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산지 유통·수급 ▲농식품 마케팅 ▲디지털 전환 ▲푸드테크 ▲지역 먹거리 계획 ▲농식품 창업 ▲수출 등 12개 교육 분야다.

모집 대상은 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이 운영 하는 교육과정 강의를 참여 가능한 인원으로, 이번 모집 및 수료 이후 인력풀에 등록된 강사는 향후 교육원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도종자관리소 "맥류 적기에 파종 하세요"

늦어지면 파종량·밀거름 늘려야

전남도종자관리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도 동계작물(맥류) 종자 생산·공급계획'에 따라 전국 최대 면적의 원종 파종을 시작하고, 농업인들에게도 오는 10일까지 맥류 파종 작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종자 생산·공급계획에 따르면 전국 8개 도에서 원종 86ha(12개 품종·232t)를 재배한다. 이중 전남도종자관리소는 26ha(5개 품종·70t)로 전국 원종 생산기관 중 가장 많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맥류 적기 파종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최근 잦은 비로 맥류 파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맥

류의 안정적 수량 확보와 월동을 위해서는 파종 적기를 최대한 맞춰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본잎 5~6매가 퍼져야 한다.

하지만 기상 및 토양 여건에 따라 파종이 늦어지면 파종량을 기준량보다 20~30% 늘리고, 밀거름으로 인산, 칼륨도 더 많이 뿌려야 하며 퇴비나 볏짚 등 유기물로 덮어 안전하게 월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원진 전남도종자관리소장은 "안정적 재배와 수량 확보를 위한 첫걸음은 좋은 종자를 적기에 파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균일한 우량 종자를 생산해 농업인에게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윤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사범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예능	유아교육과	8 2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심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330로 36